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 권 율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장
(ykwon@kiep.go.kr, Tel: 044-414-1060)
- 이상미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smlee@kiep.go.kr, Tel: 044-414-1241)
- 송지혜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 유애라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ailayoo@kiep.go.kr, Tel: 044-414-1239)

차 례 ●●●

1.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수단
3. 주요 공여기관의 대응전략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UN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개최하고,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Post-2015 개발어젠다를 채택함.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합의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기존의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 SDGs는 공공재원만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이나 혼합금융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 ▶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어젠다 및 이행수단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ODA 확대목표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ODA 추진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함.
 - SDGs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재원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ODA와 민간재원 간의 보완적 관계에서 중장기적으로 ODA가 비교우위를 갖고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다양한 민간재원을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ODA 개념 현대화 논의로 ODA가 증여등기액 방식으로 재정의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1.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

■ UN은 2015년 9월 25~27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개최하고,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Post-2015 개발어젠다를 채택함.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합의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00년에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예정임.

■ 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SDGs는 기존의 MDGs를 확대하여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관련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MDGs의 성과와 교훈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빈곤퇴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전제하면서 개발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등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한 개발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함.

■ Post-2015 개발어젠다는 기존의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integrated and indivisible)을 강화하고 있음.

- SDGs는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목표(targets)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표 1. SDGs 목표간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targets)와 연계되는 SDGs	연계목표 개수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기아, 건강,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성장, 불평등, 도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10
2. 기아 퇴치, 식량안보 및 적절한 영양섭취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빈곤, 건강, 양성평등, 경제 성장, 불평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육상 생태계	8
3. 모든 연령층에 건강한 삶과 웰빙을 보장	빈곤, 기아,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불평등, 도시, 소비와 생산	8
4. 포용적이며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건강, 양성평등, 경제 성장, 불평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평화	7

표 1. 계속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targets)와 연계되는 SDGs	연계목표 개수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실현	빈곤, 기아, 건강, 교육, 물과 위생, 불평등, 소비와 생산, 평화	8
6. 모두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빈곤, 건강, 양성평등, 불평등, 도시, 소비와 생산, 육상 생태계	7
7. 모두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제공	빈곤, 불평등, 소비와 생산	3
8. 모두에게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빈곤, 기아, 교육, 인프라, 불평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육상 생태계, 평화	10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구, 혁신 도모	불평등, 경제 성장, 소비와 생산	3
10. 국가 내, 국가간 불평등 해소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성장, 인프라, 도시, 육상 생태계, 평화	12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여건 조성	빈곤, 건강, 물과 위생, 불평등, 소비와 생산, 평화	6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보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성장, 인프라, 도시, 기후변화, 해양, 육상 생태계, 평화	14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 추구	빈곤, 기아, 교육, 경제 성장, 소비와 생산, 육상 생태계	6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경제 성장, 소비와 생산	2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 도모,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기아, 물과 위생, 경제 성장, 불평등,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6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구,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교육, 양성평등, 경제 성장, 불평등, 도시, 소비와 생산	6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DGs 모두에 해당	

자료: Le Blanc(2015), p.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또한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broad and universal) 과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대해 나가야 하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신흥공여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이행책무성 메커니즘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아디스아바바행동어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행수단 논의와 각국 정부의 Post-2015 어젠다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주요 논의 현황 및 과제를 검토하고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대응전략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체제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수단

가.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와 개발재원

- 유엔 70주년을 맞이하여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는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해¹⁾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선언(Declaration)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이행수단과 글로벌협력(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후속조치(Follow-up and Review)로 구성되어 있음.

 -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을 핵심요소로 모든 인간이 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 보건위생, 안전한 주거지와 에너지 접근이 보장되며, 정의롭고 양성이 평등한 이상적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함.
-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개발목표의 일부로 포함(SDG 17)하고 있음.

 -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부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MDGs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구체화하여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 SDG 17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성, 기술이전, 역량강화, 무역촉진, 제도적 개선에 대한 주요 목표 및 세부목표(17.1~19)를 제시함.

표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SDG17)

재원	
17.1	개도국의 조세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재원조성 확대
17.2	선진국은 GNI 대비 0.7%를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하며, 그중 0.15~0.20%를 최빈국에 제공
17.3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대개도국 재원조성
17.4	필요에 따라 채권금융(debt financing), 부채탕감(debt relief), 채무재구성(debt restructuring)을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장기부채 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돕고, 고부채 최빈국(HIPC)의 대외부채 해소로 부채부담(debt distress) 감소
17.5	최빈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체계 채택 및 이행

1) 공식명칭은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임.

표 2. 계속

기술	
17.6	기존의 UN 메커니즘 강화 및 (합의되는 경우)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국제 협력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지식 공유 강화
17.7	양허 및 특허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전파 확산을 증진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술은행 및 STI(과학, 기술, 혁신) 능력배양 메커니즘 운용을 시작하고, ICT 구현기술을 개선
역량강화	
17.9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효과적이고 집중적인(targeted) 개도국 역량강화/능력배양 지원 강화
무역	
17.10	도하 개발어젠다 협상 타결 등으로 WTO하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평등한 다자간 무역 체제 증진
17.11	개도국의 수출을 크게 늘리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의 비율을 두 배 증가
17.12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시장접근 원활화에 기여하고, WTO 결정문에 따라 모든 최빈국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이행을 시의 적절하게 실현
제도: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세계 거시경제 안정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각국 정책재량 및 리더십을 존중
제도: 다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다자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17.17	파트너십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및 도모
제도: 데이터 모니터링,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소규모 도서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 소득, 성,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여부, 장애, 지리적 위치와 국가별 상황에 유의미한 기타 특징에 따라 분리가능한(disaggregate), 고품질의 시의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크게 개선
17.19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GDP를 보완하는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방안을 개발

자료: UN(2015)에서 저자 발췌.

■ **재원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을 0.7%로 확대(SDG 17.2) 및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자원조성(SDG 17.3)을 목표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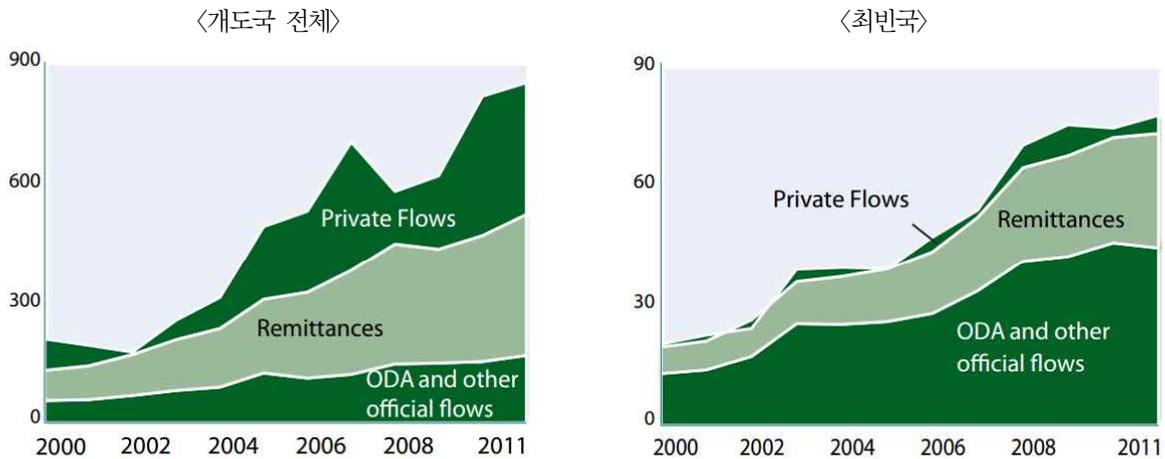
- SDGs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최빈국의 경우 기반환경 부재로 민간재원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재원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DG 17.2는 GNI 대비 0.15~0.20%의 공적재원을 최빈국에 제공하도록 명시함.
-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국 등에 대한 지원과 분쟁국가 및 분쟁 이후 재건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 **SDGs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재원은 국내공공재원, 국제공공재원, 국내민간재원 및 국제민간재원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4가지 개발재원 유입은 2002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원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 UNCTAD에서 2014년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SDGs 관련 분야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연간 3.3조~4.5조 달러(평균 3.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투자수준은 1.42조 달러이기 때문에 1.9조~3.1조 달러(평균 2.5조 달러)의 투자수요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²⁾
- DAC 회원국의 ODA 총액은 1,350억 달러이며, 기타공적자금(OOF) 및 민간재원까지 포함하여 개도국에 유입된 DAC 회원국 재원은 4,450억 달러임.
- 국제사회는 공공재원만 활용해서는 SDGs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나 혼합금융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그림 1. 개도국에 대한 자원별 유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 7.

나. SDGs 달성을 위한 자원수요

■ 빈곤퇴치 및 환경 등 SDGs 관련 이슈에 대한 투자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의 투자수요가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ODA만으로는 SDGs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SDG 17.3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원조달이 시급한 실정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수요 추정을 위한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 Working Group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TT)은 지난 2013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SDGs에서 중요한 이슈인 인프라, 농업, 에너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해양, 산림 등 지구환경에 대한 연간 투자수요를 추정하였음.
- o 개도국의 SDGs 달성과 관련된 투자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프라이며, 뒤를 이어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음(표 3 참고).

2) UNCTAD(2014), p. 140.

표 3.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자원 수요 추정치³⁾

(단위: 십억 달러)

	최소	최대
인프라	1,000	1,777
신재생 에너지	136	718
기후변화 감축	177	695
생물다양성	74	436
에너지 효율성	250	400
MDGs	20	200
토지 및 농업	50	200
산림	40	160
해양	39	90
기후변화 적응	27	81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34	49

주: 1) 추정치는 최댓값을 기준으로 정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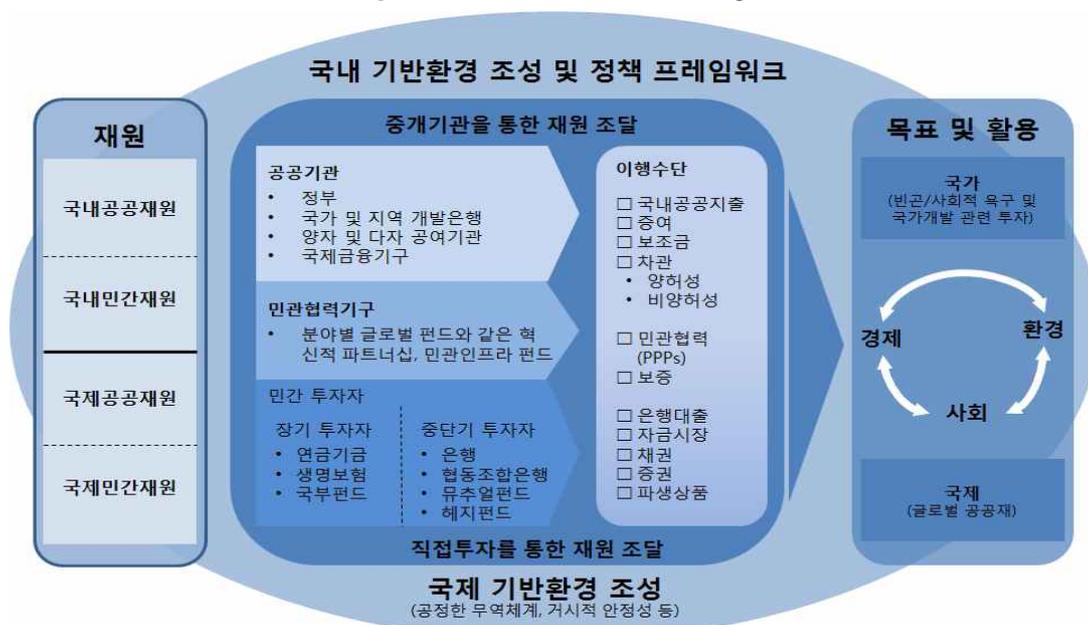
2) 투자수요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큰 이유는 포함하는 세부분야와 추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임.

3) 생물다양성, 산림 및 해양의 경우 전 세계 투자수요임.

자료: UNTT(2013), pp. 6-22 내용 및 정지원 외(2015), pp. 36-4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지속가능발전 자원조달 관련 정부간 전문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는 2014년 발표한 보고회에서 다양한 자원 및 이행수단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자원조달전략 수립을 제안함(그림 2 참고).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 자원과 이행 기관 및 수단



자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 20.

3) 투자수요 추정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추정방법론, 가정 및 포함하는 세부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UNTT 보고서는 자원수요 추정구간을 발표하였으며, 추정치간 합산이나 비교는 불가함.

- 국내외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다양한 이행수단을 통해 국내공공재원, 국내민간재원, 국제공공재원과 국제민간재원의 4가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
- 공공 및 민간 재원 모두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및 국제금융체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⁴⁾ 다양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그림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개기관 및 직접투자자들의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내 기반환경 조성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공공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 역량강화 및 조세제도 개혁을 지원해야 하며, 국제공공재원 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ODA 지원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재원, 남남협력, 민관협력 등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하여 SDGs 달성에 활용하는 혼합금융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민관협력(PPP)뿐만 아니라 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차관, 주식투자 및 보증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민간재원 및 다양한 혼합금융상품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ODA와 같은 국제공공재원의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GNI 대비 ODA 목표치 0.7%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o 민간재원 조달의 촉매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 역량강화, 조세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장 기반환경 조성과 같은 분야에는 ODA를 통한 기술지원 및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음.

표 4. SDGs 달성 활용가능 개발재원의 종류 및 통합 자원조달 전략

재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자원조달 전략
국내공공재원	세계 개혁 및 납세 순응 촉진, 국제협력 강화
	건전한 재정 거버넌스 및 공공재정관리 보장
	외부효과 내부화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주류화
	불평등 및 사회적 보호 의무
	공공부채의 효과적 관리
	국가개발은행의 잠재적 기여도 확인
국내민간재원	가계 및 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촉진
	장기투자를 위한 금융시장 개발, 금융시장 접근 및 안정성 균형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반 환경 조성 강화
	금융체계 내 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EESG) 및 지속가능성 고려

4)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4), p. 13.

표 4. 계속

재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재원조달 전략
국제공공재원	GNI 대비 0.7% 기준 달성 및 최빈국에 GNI 대비 0.15~0.20% 지원
	혁신적 재원, 남남협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국제공공재원 및 수단 활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공공재원 활용
국제민간재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한 국제기금 마련
	단기적인 국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 변동성 관리
	송금액 및 민간개발지원 흐름 활성화
혼합금융	혼합금융 및 혁신적 파트너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평가
	혼합금융 지원에서의 양자 및 다자 개발은행 등 개발금융기관의 잠재적 기여도 파악
	역량개발 노력 강화

자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pp. 21-41.

■ Post-2015 선언문은 목표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조하며, 국가·지역·세계 차원에서 각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제시함.

- 선언문에서 제시된 이행현황 검토, 즉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은 국가 자발성, 국가별 현황 고려, 투명성 강화, 취약계층 고려, 국가주도 데이터 수집, 개도국 데이터 수집역량 지원 등임.
- SDSN은 100개의 지표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각국의 모니터링 체계수립에 활용하도록 UN에 제출함⁵⁾

3. 주요 공여기관의 대응전략

가. OECD

■ 2013년 OECD는 “OECD and Post-2015 Reflections”를 발표하여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OECD의 관점을 제시함.

- 국제사회가 궁극적 목표(goals)를 제시하면, 개별 국가가 이를 자국의 개발수준·역량 등에 맞추어 재해석하여 단기 목표(targets) 및 지표(indicator)를 수립하도록 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함.
- Post-2015 개발어젠다 수립에 고려할 구성 요소를 기대성과(outcome)와 이행수단(tools)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6).

표 5.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구성 요소		특성
1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개발 가치를 설정 및 측정	기대성과
2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국제단위 측정방안 개발	
3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신장 달성	
4	지속가능성을 개발의 전 분야에 적용	
5	국가 통계제도 강화	도구 (이행수단)
6	효과적인 제도와 책무성 메커니즘 수립	
7	평화적 국가수립 목표 개발과 추진	
8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9	지식공유·정책대화 참여·상호학습	
10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추구	
11	개발재원 모니터링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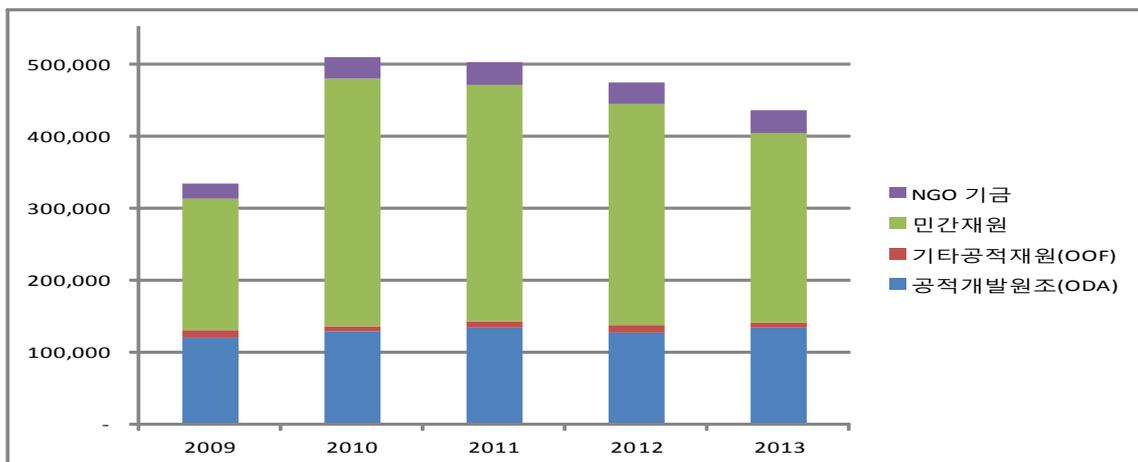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pp. 5-17을 토대로 저자 작성.

■ 2015년 9월 공개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는 SDGs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함.

- SDGs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원을 주로 제공해온 정부의 역할 다변화 또한 요구됨.
- o 일자리 창출·기술개발·투자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 o 공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제고

그림 3. 유형별 DAC 회원국 자원제공 현황(2009~13년)

(단위: 지출기준, 백만 달러)



자료: OECD(2015), p. 311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정부가 담당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민간재원은 연도별 변동성이 커 대개도국 자원 유입(flows) 추이가 크게 달라짐.
- o 2013년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유입된 약 4,350억 달러 중 2/3가량이 민간부문에서 지출됨.
- o SDGs 달성을 위한 개도국 자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와 이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중요함.

-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10개 성공요소를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자원 제공과 자원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나. 유럽연합(EU)

■ EU는 현재 SDGs 및 세부목표 이행방안, 글로벌 협력 및 성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EU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 의회전언(Commission Communication) 및 의회 선언문(Council Conclusions)을 통해 SDGs에 대한 EU의 비전,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함.
- 2014년 12월 변혁적이고 보편적인 어젠다에 대한 EU의 비전을 명시한 ‘변혁적인 Post-2015 어젠다(A Transformative Post-2015 Agenda)’라는 의회 선언문을 채택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지침을 설정
- 2015년 5월에는 ‘2015년 이후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New Global Partnership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을 의회 선언문으로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에 대해 명시하였음.

■ 2015년 7월 EU는 추가적으로 SDGs와 관련된 자원조달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 문서를 발간하였으며,⁶⁾ S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자원조달 지원, 혼합자원을 통한 개발자원 확대,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GNI 대비 ODA 목표 실현을 통해 EU 및 회원국이 ODA 최대 공여국 위상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 EU는 개도국의 자체 이윤창출과 탈세, 세금회피 및 비공식적인 자금흐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자원 조달 관련 주력프로그램에 4,2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예산지원프로그램 지원, 개도국 국내 공공재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지속할 예정임.
- 혼합금융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도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해 위험은 높으나 사회·환경적 효익이 큰 민간 부분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⁷⁾
- EU 및 회원국은 전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GNI 대비 ODA 비중 0.15~0.20%는 최빈국에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이외에도 SDGs의 주요 의제인 환경 및 기후변화, 무역, 과학, 기술 및 혁신, 송금액, 지속가능한 농업 및 영양, 에너지, 인간개발, 양성평등, 평화로운 사회 등을 위해서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을 명시함.

6) EU(2015), “Financing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Illustrations of Key EU Contributions.” 본 문서는 EU 회원국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EU 회원국 전체 의견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7) 현지 민간개발 부문 및 책임 있고 포용적인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에 투자할 것을 명시함.

표. 6. EU의 SDGs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수단 활용 계획(안)

SDGs 주요 의제	이행수단 및 지원 내용
환경 및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지원규모의 20%가량을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지원하고, EIB 금융 운용의 25%가량을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지원 • 2020년까지 13억 유로를 환경 및 기후 관련 글로벌 공공재에 투자 •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분야에 10억 유로 지원 • 2020년까지 1억 7,000만 유로를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자연자본계정 분야에 지식 및 경험공유, 전략적 협상 및 프로젝트 수행의 형태로 제공 •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개선에 2020년까지 다자기구를 통해 5,000만 달러 지원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이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erformances)와 GS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간 60억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혜택 제공 • LDC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제도를 제공
과학, 기술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혁신에 대한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인 Horizon 2020에 배정된 예산의 60%는 지속가능발전에, 35%는 기후 관련 활동에 지원하고 개도국 연구자의 참여 독려
해외송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4억 유로가량의 해외송금액에 대한 비용 절감 • 금융포용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4,410억 유로 이상의 연간 국제이주저축액(global diaspora savings) 조달에 기여 •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의 채택과 이행을 통해 해외 송금액에 대한 비용 투명성, 혁신, 안전 및 경쟁 개선에 기여
지속가능 농업 및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량안보 강화를 지원하고 농업금융이니셔티브(AgriFI: Agriculture Financing Initiative)를 통해 농업을 통한 포괄적 성장 촉진 • 2020년까지 식량 및 영양 안보 분야에 88억 달러를 지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개도국 인구 5억 명에 대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지원 • 모두에게 지속가능 에너지(SE4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0년까지 35억 유로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300억 유로의 에너지 투자 • ElectriFI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의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2억 7,000만 유로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 • 케냐의 투르카나호수 풍력발전지역(The Lake Turkana Wind Farm)은 EIB 차관과 EU 증여액을 민간투자자와 혼합하여 지원
인적자원 개발 (보건, 교육 및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의 20%가량을 인적자원 개발에 지원할 예정(2020년까지 140억 유로) • 50개 개도국에 대한 강건한 보건 및 교육체계 지원에 최소 41억 유로 지원 • 600만 아동의 면역강화 및 HIV 치료약물 제공 지원 • 2019년까지 390만 명의 아동에 대한 초중등 교육 지원 • 질병 관련 오염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1,000만 유로 지원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지속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 및 성 주류화에 대해 1억 유로 지원 • 양성평등, 여아 및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실행계획(Gender Action Plan)」 이행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시민사회, 민주화, 법치주의 및 인권에 대해 70억 유로 지원 • 분쟁 예방 및 해소와 평화 및 안전 관련 활동에 2020년까지 40억 유로 지원 • 취약국에 대한 지원 지속
LDCs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LDCs에 대하여 GNI 대비 ODA 비중 0.15~0.25% 지원하고, 2030년까지 0.20% 지원 • LDCs의 대유럽 수출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를 통해 대략적으로 연간 수출액의 12%가량의 혜택 제공 • LDCs 서비스 웨이버 및 이행을 지원

자료: EU(2015), pp. 4-9.

다. G20

- 2014년 11월에 개최된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퇴치 및 개발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확인하고, Post-2015 개발어젠다 합의를 위한 UN의 노력에 대 G20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였음.
- 2014년 G20 회의의 개발의제는 SDGs 이행수단 강조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조성과 인프라투자,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등 5개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표 7. 2014년 G20 개발의제 주요 분야

분야	내용
금융소외계층포용	금융소외계층포용 행동계획(FIAP) ⁸⁾ 및 국제송금 평균비용 감축목표(5%) ⁹⁾ 의 지속적 추진에 합의
국내재원조성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¹⁰⁾ ,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관련 보고서 채택을 통해 개도국 세원 보호 가속화 - BEPS 대응 관련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 ¹¹⁾ 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과세제도 불일치, 유해조세제도, 조세조약, 무형자산 이전가격을 위한 가이드라인, 다자간 협정 개발을 위한 분석보고서 등 7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마련
인프라투자	아시아지역 사업준비기구 평가를 통해 사업준비 단계의 투자 방해요소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
식량안보	식량안보 관련 G20의 비교우위 확인 및 주요의제화를 위해 노력
인적자원개발	고용확대를 위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기술교육 제공의 강화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SDGs)’에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며 관련 측정지표 제안 - 2014년 5월 개최된 Post-2015 개발어젠다 토론포럼에서 G20 개발실무그룹은 해당 지표의 선정과 이행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 강조

자료: G20(2014) 토대로 저자 작성.

- 2015년 G20 의장국인 터키는 2015 G20 핵심 3대 의제 중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지지(Buttressing Sustainability)’의 세부 항목으로 개발, 에너지, 기후재원 이슈를 포함시키고, G20 의제의 핵심(Center of G20 agenda)임을 강조

8)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FIAP): 민간분야 주도 혁신 촉진, 중소기업 금융기회증진,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사항임.

9) 2015년까지 송금비용을 5%로 감축하기로 한 ‘5x5 initiative’의 현실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표달성 기한을 연장함.

1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

11)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매출액, 납세액, 자산 등을 보고하고 관련국간에 공유하는 방안.

- 의장국의 중점 제안사항은 식량안보,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및 연계 확대 등으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함.

■ 2015년 G20 개발의제는 2014년 논의된 5개 중점 분야 및 ‘포용적 비즈니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 중임.

- 의장국 터키는 2014년 12월에 개최된 G20 이스탄불 세르파 회의에서 민간부문의 개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¹²⁾을 개발의 새로운 의제로 제시함.
- 성과물로는 원칙, 가이드라인, 민간부문의 정책 옵션, 기업사례 등을 포함하는 G20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마련 및 민간 정보공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설치 등이 논의 중임.

■ 지난 2015년 4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개발 의제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동선언문에 명시

- 2015년까지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 작업계획에 따라 대응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조세 정보 자동교환 개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¹³⁾임을 언급. 더불어 국제조세개혁 과제의 개도국 동참 지원¹⁴⁾을 재강조

라. 세계은행

■ 세계은행(WB), 다자개발은행(MDBs) 및 국제통화기금(IMF)은 Post-2015 의제의 자원조달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옴.

- WBG-IMF 2015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From Billions to Trillions: Transforming Development Finance”라는 공동 보고서¹⁵⁾를 통해 주요 공여기구이자 혁신적인 중개기구로서 다자기구의 공통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이 비전은 ODA의 변화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개발 자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역점을 둬. 각 국가의 주요 역할은 투

12) 자선적 성격이 아닌 이윤 창출의 일환으로 저소득 집단의 이익을 도모(저소득층 고용, 저소득층 구매 가능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하고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13) 2015년 말까지 역외조세회피방지안 합의를 완료하고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14) 신흥국과 개도국의 조세 역량을 고려해 이행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도국의 BEPS 이행지원방안(toolkit) 마련을 점검하기로 합의.

15)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Lending commitment)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미주개발은행(I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발표함(2015. 4. 16).

자유입 촉진 및 개발 우선순위 결정 등인 반면,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역할은 추가자금 동원 촉진 및 전달임을 언급하며 글로벌 다자개발시스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레버리지 도구(Leveraging machines) 역할을 강조

■ 세계은행은 ‘From Billions to Trillions’ 비전과 연계하여 새로운 플랫폼과 수단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세계은행의 여러 기관에서 재원 증가, 국내재원 확보 및 공공 지출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개, 민간투자 촉진,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활동을 지원, 조정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노력
- o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세계은행 전략의 주요 요소로 Program-for-Results(PforR) Innovation¹⁶⁾ 언급
- o 세계은행은 IMF 및 기타 개발 파트너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확보 및 공공지출 관련 지원 강화를 위해 세계은행 · 국제통화기금 공동 세수 유동성 평가 메커니즘(Joint WBG/IMF 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Assessment Mechanism)¹⁷⁾을 구축
- o 민간 부문 투자에 중점을 둔 이니셔티브로 IFC AMC(Asset Management Company)와 MCPP(Managed Co-lending portfolio program), GIF(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¹⁸⁾ 등이 있음.

그림 4. 레버리지 도구로서의 국제금융기구



자료: WBG(2015), p. 3.

■ 한편 세계은행은 각 국가 수준에서 Post-2015 글로벌 개발어젠다 이행의 함의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를 발표함.

- 이 프레임워크는 초기 여건, 재원 접근 정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에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며,

16) PforR instrument는 각 국가의 오퍼십과 국가의 프로그램, 시스템 및 제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음. PforR은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모든 이용 가능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촉진하고자 함.

17) 세금정책 관련 입장, 세입 시스템의 효율성 및 세무행정 등을 평가.

18) 민간 부문과 기관투자 자본의 동원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인프라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준비와 구조를 용이하게 하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은 ‘우간다’를 대상으로 진단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네 단계를 제시함(2014년 10월 발표).
-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질문 제기 및 답을 구하는 과정, 보다 상세한 국가특성을 반영한 연구 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SDGs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국가 진단 프레임워크의 주요 단계

단 계	내 용
1단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각각의 SDGs에 대한 해당 국가의 현재 진행 정도를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의 관점에서 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Cross-country 회귀분석을 활용
2단계	2030년까지 각 SDGs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BAU: Business as Usual) 예측되는 결과를 전망
3단계	각 SDGs와 관련한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여지에 대해 논의. SDGs 진행을 가속화하는 정책 변화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가능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현재 수준의 다양한 SDGs 결정요인을 벤치마크 함. GNI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SDGs 결정요인을 파악
4단계	각 SDG 중점분야(priority)와 관련된 지출 및 재원 증가방안 논의

자료: Gable et al(2014)을 토대로 저자 정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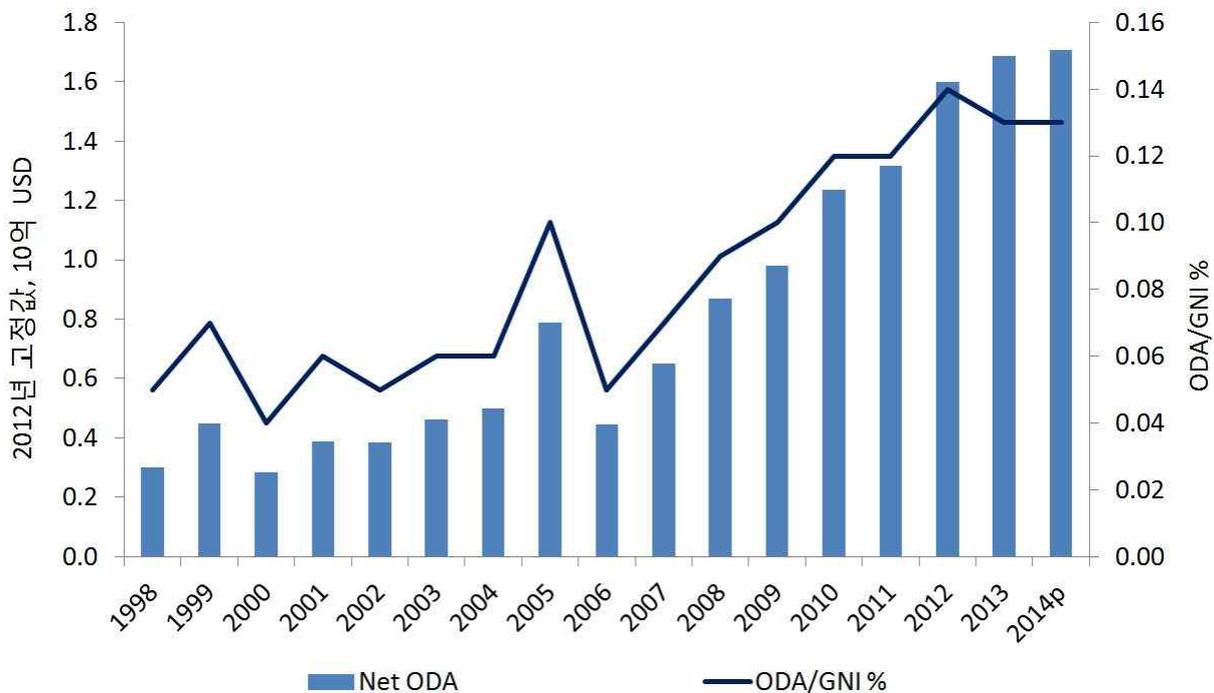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s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빈곤의 종식과 국제개발환경의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Post-2015 이후 개발목표 범위와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30년까지 경제·사회·환경 관련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과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 등을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반영해야 함.
-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2012년 출범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Co-oper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어젠다 및 이행수단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ODA 확대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ODA 추진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함.

-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ODA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3%에 불과한 바(그림 5 참고), 추가적인 공적재원 조성방안 모색이 시급함.
- o OECD DAC 회원국의 2014년 평균 GNI 대비 ODA 비중은 0.29%이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스웨덴 5개국만 ODA 지원 목표인 0.7%를 달성하였음.
- SDGs를 주류화하기 위한 개발목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재원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ODA와 민간재원 간의 보완적 관계에서 중장기적으로 ODA가 비교우위를 갖고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재원 조달 방안 및 전략 마련 필요

그림 5.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 및 ODA/GNI 비중(1998~2014년)



자료: OECD(2015), p. 235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주요 국제공여기관들은 SDGs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협력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참여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이행수단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전략 및 계획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은행이 개발금융기관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민간 부문 금융수단(PSI: Private-Sector Instrument)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개발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¹⁹⁾

19) 임소진(2015), p. 2.

- 아울러 중점협력국에 대한 2차 CPS 수립 시 세계은행의 국가진단 프레임워크를 참고하거나 활용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효과성 증진과 개발재원 조달 및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양한 민간재원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ODA 개념 현대화 논의로 ODA가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재정의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 개도국 지원이 어떤 수단으로 제공되었는지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공여국의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유·무상 원조의 통합적 연계와 추진체제 개선이 필요함.
- 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 및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바, 구조화된 금융기법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KIEP

참고문헌

- 권 율. 2015. 「SDGs 이행과 개발재원」.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전략』. 국회입법조사처·국제개발협력학회 세미나 자료집.
- _____. 2015. 「개발재원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어젠다: 한국의 역할과 과제」.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한국 SDSN·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임소진. 2015. 「ODA 현대화와 민간재원 I: 민간금융수단(PSI)과 개발금융기관(DFI)」. 『EDCF Issue Paper』, Vol 4, No. 4.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2015.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 송지혜. 2014.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제14-3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DB, AfDB, EB, IDB, EIB, IMF & WB.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Transforming Development Finance."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 EU. 2015. "Financing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Illustrations of Key EU Contributions."
- EU Commission Communication. 2015. "A Global Partnership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 EU Council Conclusions. 2014. "On a Transformative post-2015 agenda."
- _____. 2015. "A New Global Partnership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2015."
- G20. 2014. "Growth for All: 2014 Brisbane Development Update."
-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Communique. 16-17 April 2015, Washington D.C., USA.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4.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 Le Blanc, David.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DESA Working Paper No. 141.
- OECD. 2013. "Beyo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Towards an OECD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agenda."
- _____.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Making Partnerships Effective Coalitions for Action."
-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Gable, Susanna, Hans Lofgren, and Istael Osorio-Rodarte. 2014. *The Post-2015 Global Agenda: 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 World Bank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UNTT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3.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Global Investment Requirement Estimates."
- World Bank Group. 2015. "Information Note: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World Bank Group."